

꽃을 들었으면 벌써 봄이 왔다는 뜻이거든요

29면에서 계속

다면, 그리고 건져 준다, 그리고 육으로나 또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그렇게 적합하게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길잡이가 된다면 그 사람들도 역시 좋아할 것입니다. 그래서 유마힐 거사가 방 거사고 방 거사가 유마힐 거사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들이 나와서 부처님을 모신다면 부처님에 대한 그 뜻을 역력히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 말은 여러분이 몰라도,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선 생활하는 데 급급하거나, 생활하는 데 급해서 만약에 어떠한 병자나를 위해서 돼지를 잡는다는가 소를 잡는다는가 닭을 잡는다는가 토끼를 잡는다는가 이런다 할지라도 그것을 각각 두고 살생이 되게 하지 말고, 바로 그 살은 내 살이요 그 마음은 내 마음이요 그 생명은 내 생명이라는 그 공생 공심으로 돌아갈 수 있고, 공제로써 공용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넓은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살 생이 되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사람사람이 모두 마음으로써 '아이고, 저걸 죽였으니 지장보살! 저것 좀 천도해 주십시오.' 누구더러 해 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죽여 놓고 누구더러 해 달라는 거예요? 대답하건가요, 누가? "어, 내가 천도시켜 주마." 그리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과도 그 모든 것이 다누가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뻗어 가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한 것만치, 좋게 했으면 좋게 한 것만치 나쁘게 했으면 나쁘게 한 것만치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건 자기 하는 것이지, 누가 잘 풀어 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법입니다.

계속 교회에 다녀도 되는지

질문: 저는 미국의 한국계 회사에 인턴으로 취직하게 된 불자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교회에 다니지 않고 절에 다닌다는 것이 너무 버겁습니다. 저를 제외한 대부분이 일요일에 교회에 가는데 정착원도 아닌 제가 혼자만 절에 다닌다고 하니 바라보는 시선도 따갑고, 나이 드신 분들이나 다니는 곳에 다닌다면서 같이 교회에 자가고 회의를 많이 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스님의 법문 중에 퍼져 못하게 교회에 가더라도 남들이 (주)를 찾을 때, 내 안의 주인인 심주(心主)를 찾지만 한다면 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심주를 찾으면서 계속 교회에 다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여러분! 이렇게 발전된 세상에 자기를 이끌어 가는 정신세계의 영원한 자기의 신을 모르고, 나부터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모르고 간다면 안 되죠. 이렇게 말한다고 "그러면 부처님한테 갈 필요도 없겠네요." 이러겠지요. 그게 아닙니다. 가톨릭이나 기독교를 믿고 성당이나 교

회에 가더라도 주체는 바로 자기한테 있는 겁니다. 자기한테! 그런데도 어느 종교를 막론해 놓고 기복 아닌 게 없어요. 이러니 이게 보람 있게 살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림을 보거나 형상을 보고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부처님 믿으려 갈게 없지, 형상을 믿지 말라니까." 이러겠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당신들의 몸도 형상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몸과 내 몸이 들어 있습니다. 이 도리를 아주 한생각을 돌려서 잘 믿는 데 달려 있는 겁니다. 법당에 가더라도, 만불(萬佛)이 놓여 있더라도 내 한마음의 일불(一佛)입니다. 만 불도 일 불이요 일 불도 만 불입니다. 이 도리를 꼭 알아둬야 되겠습니까.

칠성이나 관세음이나 지장이나 약사나 아축이나 아미타나 미륵이나, 다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데 이름은 여러분도 각자 얼마나 많이 가지고 계십니까? 어머니라는 이름, 딸이라는 이름, 며느리라는 이름, 할머니라는 이름, 아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이름

습니까? 그러니까 기복이 되는 거예요. 이거 놓고 빌어야 하고 여기다가 빌어야 하고 저기가 빌어야 하고 정신없죠. 뭐, 닦치는 대로 말합니다.

한 분의 이름만 불러도 만약에 그 마음만 내 마음과 돌이 아니게끔 한다면 거기에 통신이 돼서 대뇌로 해서 중뇌에서 책정을 내리면 사대로 통신이 돼요. 그래서 안에 있는 그 의식들이 다 알고 안에서 다 알고 작용을 해 줄 텐데 통신 의탁할 수도 있고 심성과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를 이끌어 가는 정신계를 무시하면 물질적인 이 육신은 뭐가 됩니까? 그러니 어디가 어떻게 쓰러진다 하더라도 대처를 할 수가 없죠.

내 한마음의 한생각의 통신이면 사대로 통신이 돼서 안에서 다 알고 작용을 해 줄 텐데 통신이 안 되니까 대처할 수가 없는 거죠. 바깥으로만, 안의 자기는 썩 빼 놓고 바깥으로, 부처님이 높지 않아 계신 줄 알고 '부처님, 부처님! 나를 잘살게 해 주세요, 잘되게 해 주세요, 삼재

질문: 석가모니께서 영산회상에서 꽃을 들어 보이시니 가슴이 웃었습니까? 어느 책을 보니까 그 대목에서 가슴이 큰 죄를 지었다고 합니다. 왜 죄를 지었느냐 하나까 뭘 웃느냐는 말씀이죠. 이 부분을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답변: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까닭이 없으면 이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까닭이 있기 때문에 진리거든요. 우리가 공생 공심 공용으로 돌아 가는 것도 까닭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겁니다. 그 까닭 때문에 모두들 험뜯고 뜯고 그러는데 그것은 공부하는 사람의 그 과묵함이지 까닭이 있어야 성사가 되는데 어떡합니까. 까닭 없이 무슨 성사가 되나요? 그러면 장속 안에 넣어 놓고 그냥 있는 셈이냐 다른 혹에서 개발 못하고 무용처로다가 그냥, 무용신으로 그냥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까닭이 있는 거다 이겁니다. 만약에 그 꽃을 들었으면 벌써 봄이 왔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쪽에서 또 웃었다 할 때는 그것도 꽃이다 이겁니다. 이쪽도 꽃을 들고 저쪽도 꽃

음을 전달하는데 때로는 신도들이, 이게 우리 있는 얘기를 하지 않는 얘기를 해서 여러분의 가슴에 감응이 될 수도 없는 거고... 참 무궁무진한 그 이치를 어떻게 다 말로 하리까? 모르는 데 어떻게 말로 해!

어떤 때는 여러분이 이렇게 오실 때 '욕심 부리지 말고요, 마음속에서 푸푹 나오는 대로 그냥 하세요, 학교를 넣는 것도 그렇고, 마음속에서, 이게 분수를 지켜요, 언제나 여기에서 나오는 거는 항상, 자기를 속일 수 없는 자기가 있는 거예요.' 하고선 일러 준다 하고요. 그럼 '알았어요.' 그리고 간다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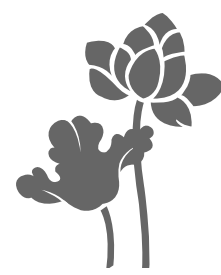
그렇게 일러 주는 사람도 있거니와 어떤 때는 터무니없이 '아이고, 스님!' 시골 참, 저런 데서 와 가지고서 지금 간질을 앓아서 죽게 됐다고, 무슨 그것만 있는 겁니까? '이것도 이렇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이거는 외려 모르는 사람 앞에는 꼼짝 못하게 돼 있어요. 내가, 그냥 '네에.' 하고 심부름꾼이 돼야 되죠. 그 사람이 모르니까 내가 심부름꾼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 앞에는 뭐 정성이 고나발이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이분이라면 내가 가서 얘기만 하면 된다.' 라는 것만 하나 가지고 오는 거니까. 그럼 일가 집까지, 저 마을의 동네까지 가지고 와요. 그러면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스님이 꼭 해 주실 거라고 믿는데...' 이런다면 어떻게 해요. 그때 '알았어요.' 이 대답밖에는 없어요. 그거는 어떤 일로 인해서 그 사람들 나름대로... 그러면 쳐다보고 '네, 알았어요.' 그리고 웃을 수밖에 없는 거죠.

웃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언제나 제일 아래, 하에 있는 사람, 제일 하에 있는 게 개발되지 않은 마음, 그런 마음이 오히려 진실한 건 가지고 있다는 얘깁니다. 진실한 거, 요리 생각 조리 생각 하지 않고, 방향하지 않고 그저 미련스럽게 그냥 놓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던 얘깁니다. 그럼 심부름하긴 쉬워요. 이것도 여러분과 나와, 그분과 나와 그럴 때 마음이 돌이 아니기 때문에 벌써 그이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벌써 된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람의 믿음이 돈독하면 그렇게, 얼마나 자기를 믿고 돌이 아니라고 믿었으면 왔다가 얘기만 하고 쓴살같이 가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가지각색이예요.

꼬투리 잡으려면... 육조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테가 없는데 뭐, 거울이 어디 있고 거울이 없는데 먼지 앓을 게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막 해 버리는 것도 거기까지 가야, 그렇게 물질로 나오는 사람 앞에는 그렇게 무뎠어 주고, 또 그 공부를 웬만치 해 간 사람 앞에는 "그것도 아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때 환경에서는 육조 스님이 그렇게 대답 안 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하여튼 사람에 따라서, 근기에 따라서 맞추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론이 아니고 실천입니다. 학식이나 이런 걸로다가 사는 게 아니라 못났든 잘났든 못 배웠든 잘 배웠든 진실된 실천을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이름대로 여러분이 지금 '아버지!' 하면 아버지가 되고 '여보!' 하면 남편이 되는데, 남편 따로 아버지 따로 이름을 각각 꼬리표 붙여 놓듯이 해 놓고 거기가 따로따로 하면서 믿어서야 되겠습니까?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만 명이 깨졌다 하더라도 한 부처님이지 만 명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몸 속에 헤아릴 수 없는 증생들이 들어 있어도 한 분이지 그 만 분을 따로따로 이름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병이 들고 그래서 병원에 가거나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이름이 따로 있죠. 따로 있던 하나 한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로 부르는 한 이름입니다. 천차만별의 이름이 있지만 한 분입니다. 한 몸, 한 분입니다. 그와 같이 부처님의 마음도 몸도 그래서 '한 분, 한 마음, 한 생명' 그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공했다고 하셨고 그래서 부처님의 몸은 아주 크다고 그랬습니다. 광대하고 무변하고 묘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이 따로따로, 약사 따로 미륵 따로 아축 따로 관세음 따로 지장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생각을 하고 따로따로 부르던데 그냥 생활을 하면서 참나찰나 앞에 딱치고 참나찰나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어떻게 다 대처를 하겠

없이 해 주세요. 번뇌가 끊어지게 해 주세요.' 별 타령이 다 많지만 절대로 대신 해 줄 수 없습니다. 부처님이 여기 계신다 해도 대신 못 뉘 줄 수도 없을 것이고 밥 먹어 줄 수도 없을 것이고, 집자 줄 수도 없을 것이고 아파 줄 수도 없을 것이고, 죽여 줄 수도 없을 것이고 깨치게 해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현 시대에, 이렇게 밝게 돌아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밝게 마음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밝게 마음을 발전 시켜서 위로는 조상들과 아래로는 내 몸속에 있는 자생증생들도 더불어 같이 한마음으로 빈손이 되고 빈발이 돼서, 가고 음이 없이 가고 올 수 있고 보는 사이 없이 볼 수 있고, 듣는 사이 없이 들을 수 있고 함이 없으면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줄 알아야 여러분의 이세, 그 날아 놓은 자손들을 세세생생에 멋진 사람으로서 빛이 되게 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이론이 아니고 실천입니다. 학식이나 이런 걸로다가 사는 게 아니라 못났든 잘났든 못 배웠든 잘 배웠든 진실된 실천을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영산회상에서 꽃을 들어 보이신 까닭

영산회상에서 꽃을 들어 보이신 까닭

영산회상에서 꽃을 들어 보이신 까닭

영산회상에서 꽃을 들어 보이신 까닭

영산회상에서 꽃을 들어 보이신 까닭

영산회상에서 꽃을 들어 보이신 까닭

영산회상에서 꽃을 들어 보이신 까닭

영산회상에서 꽃을 들어 보이신 까닭

영산회상에서 꽃을 들어 보이신 까닭

영산회상에서 꽃을 들어 보이신 까닭

영산회상에서 꽃을 들어 보이신 까닭

영산회상에서 꽃을 들어 보이신 까닭

영산회상에서 꽃을 들어 보이신 까닭

영산회상에서 꽃을 들어 보이신 까닭

영산회상에서 꽃을 들어 보이신 까닭

영산회상에서 꽃을 들어 보이신 까닭

영산회상에서 꽃을 들어 보이신 까닭

영산회상에서 꽃을 들어 보이신 까닭

영산회상에서 꽃을 들어 보이신 까닭

영산회상에서 꽃을 들어 보이신 까닭

영산회상에서 꽃을 들어 보이신 까닭

영산회상에서 꽃을 들어 보이신 까닭

영산회상에서 꽃을 들어 보이신 까닭

영산회상에서 꽃을 들어 보이신 까닭

영산회상에서 꽃을 들어 보이신 까닭

영산회상에서 꽃을 들어 보이신 까닭

마하연투어

마하연투어 강력 추천상품

★ 부처님의 발자취를 찾아 떠나는 성지순례 ★

— 황금 불탑의 나라 미얀마 미얀마 항공 (8M AIR)

- ▶ 만달레이 / 양곤 5일 89만원
- ▶ 만달레이 / 바간 / 양곤 5일 99만원
- ▶ 만달레이 / 바간 / 헤호 / 양곤 6일 179만원

— 꽃보다 청춘 라오스 (인천 및 부산 출발가능)

- ▶ 비엔티엔 / 방비엔 / 루앙프라방 6일 149만원 (특급호텔 진행)

— 세계문화유산 정통 스리랑카 순례 6일 199만원

※ 모든 일정은 10인 이상시 출발, 여행자 보험 가입, 각국 공항세 포함, 유류할증료, 전일정 각국 비자수수료 포함.

미얀마 워빠사나 수행 - 상담문의(수속대행)

중국 4대불산

- ▶ 구화산&보타산 (지장도량&관음도량) 6일 요금문의
- ▶ 보현도량(아미산) 5일 요금문의
- ▶ 문수도량 6일 요금문의
- ▶ 대만 정통순례 5일 요금문의

태국 방콕 / 파타야 5일 요금문의
 캄보디아 / 씨엠랩 5일 요금문의
 라오스 성지순례 5일 요금문의
 북유럽 (노르웨이-덴마크-핀란드-스웨덴) 9일 요금문의
 동유럽 3개국 9일 요금문의
 서유럽 4개국 8일 요금문의
 미서부 7일 요금문의
 하와이 5일 요금문의

www.mahayeon.com
 (주)마하연투어 ☎ 02)365-7747

대덕 큰스님, 불자들의 인연 소중이 생각하겠습니다. 대표 : 헤거 두손모음

마하연투어 공통사항

- ① 모든경비 포함
- ② 모든 상품 품격 진행
- ③ 타여행사 비교 필수
- ④ 2역권 여행자 보험 가입